

야생동식물 寶庫 탐진강...비결은 '열린 하구'

(보고)



깍저기



기수갈고동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알락꼬리마도요

탐진강(耽津江)이 섬진강, 사천강 등 남해안 11개 하구(河口) 가운데 생물종 다양성이 월등히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흥군과 영암군, 강진군을 지나 남해로 흘러드는 탐진강에서 다양한 생물종이 어우러져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탐진강 하구가 독이 없는 열린 하구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독이 쌓이지 않아 담수와 해수가 자유롭게 오가면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이 가능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남해안 11개 하구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강진군의 탐진강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탐진강 하구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1급 1종, 2급 8종)을 포함해 1131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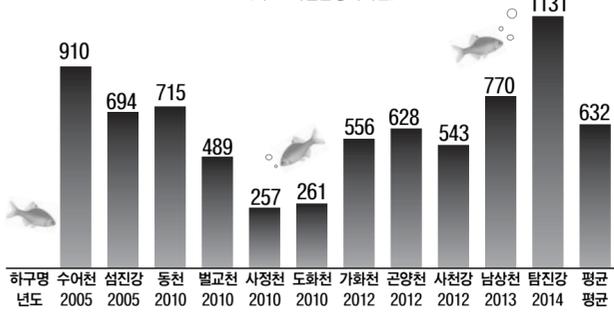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수달이며, 2급은 삼, 알락꼬리마도요,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깍저기, 기수갈고동, 붉은발말뚝개 등이다.

군별로 분류하면, 식물종 424종, 조류 75종, 포유류 12종, 어류 47종, 육상곤충 325종, 양서·파충류 11종, 담수무척추동물

하구 바닷물 유입...멸종위기 깍저기 등 1131종 서식

광양 수어천·장흥 남상천 등 전남 하구 생물종 다양

■ 남해안 하구 생물 출현종수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물 51종, 기수무척추동물 53종, 식물플랑크톤 48종, 동물플랑크톤 85종이다.

이 중 기수갈고동, 붉은발말뚝개, 송어, 뱀장어 등 2차 담수어종이 고루 관찰돼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으로서의 생태적인 건강성이 확인됐다. 담수와 해수가 혼합돼 형성되는 지역으로 염분의 농도가

0.5% 이하인 물은 담수(淡水), 30% 이상은 해수(海水) 그 중간을 기수(汽水)라고 한다.

특히 탐진강의 생물종 다양성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조사된 남해안 11개 하구의 평균 출현종(632종)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로 확인됐다.

탐진강 다음으로 생물종이 많이 서식하는 하구는 광양 수어천(910종)이며, 그 다음은 장흥 남상천(770종), 순천 동천(715종) 등의 순이었다. 남해안 11개 하구의 생물종 수 평균은 632종인 것을 감안하면, 전남 사천의 사천강(543종)과 곤양천(628종) 등은 상대적으로 종 다양성이 제한적이었다.

탐진강 일대는 독이 없는 '열린 하구'여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이 넓고, 인근에 농경지·산지·소하천 등도 많아 생태적으로 여러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좋다고 과학원은 분석했다.

하구는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 섞이는 곳으로, 염분 농도에 따라 해양생물과 담수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특이 지역이다. 현재 전국에 463개의 하천 하구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관계자는 "탐진강 하구 등 특정 지역에서 생물 다양성이 폭넓게 관찰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생물서식 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서식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탐진강 하구 전경

전기차 타고 목포서 서울까지 갈 수 있다

환경부, 충전기 100개 설치 휴게소 등 전라권 27곳 추가

전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목포나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과 긴 급충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급속충전시설 100개를 올해 주요 고속도로와 각 지역 거점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의 급속충전시설은 2011년부터 설치됐으며 올해 설치된 100개를 포함하면 총 337개가 운영되고 있다. 새로 설치된 지점은 경부·서해안·중부내륙선 등 고속도로 휴게소 30곳과 전국 시·군·구의 관공서·공원·체육관·터미널·공영주차장 등 70곳이다.

휴게소 지점별로는 경부선 죽암·옥천·황간·철곡·경산·경주·안양, 서해안선 흥성·군산·고창고인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선산 등에 설치됐다. 권역별 분포는 수도권 11곳, 경상권 21곳, 전라권 27곳, 충청권 7곳, 강원권 4곳이다. 새로 설치된 충전시설은 국내 모든 종류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멀티형이다.

기존 설치된 급속충전시설 중 이용시간이 제한된 시설에 대해서는 연내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 설치된다.

전기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130km가량 이란 것을 감안하면, 현재 충전시설 간

최장거리는 경부선 87km, 서해안선 78km 등 모두 평균 주행거리 이내여서 중단없이 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은 서울·경기권에 10기, 전라권에 2기, 경상권에 4기로 총 16기에 불과해 전기차로 200km 이상의 장거리 운행이 어려웠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대략 5~6번 충전하면 목포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약 30% 남았을 때 충전하도록 권고된다. 이동 시간은 서울~목포 구간의 경우 일반 차보다 평균 2~3시간 더 소요된다.

충전시설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이용요금은 12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충전시설 위치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충전 인프라 정보시스템(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별 충전시설 설치 여부는 도로공사 누리집(www.ex.co.kr)의 '휴게소 정보' 코너(주유소 항목)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설치된 100기를 포함한 총 337개의 급속충전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며 오는 2017년까지 총 637기의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 전국 어디든 전기차로 갈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국립공원관리공단, 희귀 식물 3종 복원

풍란·석곡·날개하늘나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풍란과 2급인 석곡, 날개하늘나리 등 희귀 식물 3종을 최근 월출산 등 3개 국립공원 자생지에서 성공적으로 복원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월 한려해상 도서에서 풍란 500개체를 복원한 데 이어 8월 말 월출산에서 석곡 2100개체, 이달 말 오대산에서 날개하늘나리 400개체를 각각 복원했다. 난초과에 속하는 풍란은 남해안과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2012년 처음 발견됐다.

난초과인 석곡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백담산과 날개하늘나리는 강원도 일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공단은 멸종위기 식물의 자체 번식에 기 위해 수시 손질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절멸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 내 자생지 일원에 최적지를 선정해 복원을 추진해왔다. 멸종위기종 식물의 복원 대상지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



풍란

해 온도, 습도, 광량, 지형 등 종별 생육 여건을 최우선 고려하고 인위적인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금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풍란의 경우 가뭄과 태풍에도 100일 후 생존율이 87%(435개)에 이르는 등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다. 42개의 '축'(난초의 포기)이 나온 것도 확인됐다. 공단은 복원된 식물의 채취·남획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 손질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절멸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 내 자생지 일원에 최적지를 선정해 복원을 추진해왔다. 멸종위기종 식물의 복원 대상지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문화복합시설 펜션·식당·전원주택단지 최고 장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 가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과거, 펜션/식당/박물관 운영함)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2441평 건882평 임6726평
- 매매-22억
감정가/시세-30억원
대출 - 12억 5천만원 포함(연 2.1%)
법인체 인수가 (이전비 없음)
1년 후 20억 정도 대출 가능
- 추가 형질변경가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